

대구광역시

道 '저출생과 전쟁' 자금 1100억 투입...역대 최대

국가 최대 현안이자 난제 저출생 문제 경북서 해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도비 541억원 등 총 1100억원 규모의 전쟁자금을 마련해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한다.

이 '자금'은 단일 분야로는 추경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빠르게 현장에 서비스하고자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은 △남남 주선 △행복 출산 △안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

만남 주선 분야는 커플·신혼부부 관광 지원 4억, 행복 가족 여행 2억6000만원, 청춘동아리 등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 1억 6000만원 등 8억원이 편성됐다.

행복 출산 분야는 임신부 미역·농산물 지원 6억3000만원, 분만산부인과,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4억5000만원,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사업 4억4000만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3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4000만원 등 24억원이 투입된다.

안전 돌봄 분야는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49억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8억2000만원, 자녀안심 아이사랑 차량 운행 5억원 등 76억원이 쓰인다.

도는 즉시 예산을 신속 집행해 5월부터 시군 현장 곳곳에 저출생 극복 서비스를 선보인다.

예산이 투입되는 100대 과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도민 정책요구와 사업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분석해 내년도 예산 반영 및 신규사업 발굴에 활용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국가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경북도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화려한 춤 실력... 내가 최고다 지난 5일 '예천탈춤제'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춤 실력을 뽐내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관련기사 9면**

경북도의회, 2024 추경 예산안 심사 마무리

국가적 위기 저출생 극복 고물가, 고금리 민생경제 회복예산 적극 지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했다.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

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 많은 작품을 출품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의원(오광)은 경북도의 저출생문제 가심각한대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단일하게 대처해왔다고 질타했다.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APEC유치의 경제 유발 효과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유치

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호광 의원(청송)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신부터 출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아이 임파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을 주문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지난 1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도청에서 요구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적 위기 문제에 의회가 적극 협력, 그동안 자주 언급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용 기자

칠곡 할매힙합 '수니와 칠공주' 해외 방송됐다

140개국 시청자 앞에서 랩 일본 NHK 방송 타고 140개국서 방송 열광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할매 들 랩 실력 어떤가요?"

칠곡 할매힙합그룹 '수니와 칠공주'가 일본 NHK 방송을 타고 전 세계 140개국 안방 시청자 앞에서 랩을 선보이며 'K-할매'의 흥과 끼를 뽐냈다.

6일 칠곡군에 따르면 영국 BBC 인터넷 서널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방송으로 꼽히는 NHK 월드 TV는 수니와 칠공주를 집중 조명하는 방송을 지난달 25일부터 내보내기 시작했다.

수니와 칠공주는 칠곡군 지천면에 사는 8명의 할머니가 모여 결성한 할매힙합 그룹이다.

세계 주요 외신으로부터 K-할매라고 불

리며 대기업 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NHK 월드 TV는 칠곡군을 방문해 1박 2일에 걸쳐 수니와 칠공주를 직접 취재하며 3분 40초 분량의 뉴스를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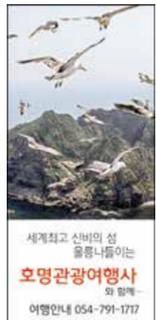
NHK는 뉴스에서 수니와 칠공주를 신선한 라인업으로 이름을 날리며 랩이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소개했다.

또 "나이가 유일한 매력은 아니며 삶과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노래한다"며 "앞으로 이 그룹의 활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수니와 칠공주의 리더 박점순 할머니는 "우리가 전 세계 방송에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인생 황혼기에 황금기를 맞은 것 같다"며 "건강 관리를 잘해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랩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여만리 떨어진 국가의 TV에서 칠곡 어르신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고 말했다.

수니와 칠공주는 전 세계 108개국에서 시청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리랑 국제방송과 세계 3대 통신사로 꼽히는 로이더와 AP통신은 물론 중국 CCTV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외에서 소개되고 있다. 조미경 기자



! 단체장 일정 !



이강택 포항시장은 7일 오전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7일 오후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5월 직원정례회에 참석해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은 월정교...

경주시, 지난달 외교부 제출한 유치 신청서 통해 이같이 밝혀

경주시가 20년 만에 한국에서 치러지는 'APEC 정상회의' 도전에 나선 가운데, 세계 정상들의 만찬장으로 월정교를 외교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경주시가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에 제출한 529쪽 분량의 유치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희망하는 지방

자치단체 가운데 역사문화도시라는 유일한 특성이 정확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1번지답게 세계 정상들과 수행원들이 묵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숙소가 풍부한 점과 숙소와 회의장이 3km 내에 있어 정상 경호에도 유리하다는 점들이 자세히 수록됐다.

보문관광단지에서 전 일정 소화가 가능해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점 역시 상세히 담겼다.

무엇보다 APEC 정상회의의 화룡점정이라고 일컫는 국민 공식만찬장으로 월정교를 활용하겠다는 제안도 눈에 띈다.

시는 사적 제457호이자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월정교에서 '대한민국의 맛과 멋 그리고 격을 높여주는 시간'을 컨셉으로 한 공식 만찬 계획도 세웠다.

월정교를 가로지르는 남천에 특설무대를 만들고 세계 정상들이 행사장에 도착한 시점부터 월정교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인근에 VIP 승하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도 경주시 제출했다.

월정교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19년(760년)에 축조된 교량으로 2018년 4월 복원되면서 침상대, 불국사, 석굴암 등과 함께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손꼽힌다. 윤용찬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대한민국 첨단농업의 미래를 키우다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농업수도 상주에서 대한민국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스마트한 미래를 선도합니다.

상상주도

미래 첨단농업의 메카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 창업의 꿈을 지원합니다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매년 전문성을 갖춘 청년 농업인을 육성, 지원합니다.

농업 첨단으로 생산성을 높입니다
농업인의 경험과 ICT의 융합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산력 극대화, 노동력 최소화를 실현합니다.

기업 혁신의 길로 선도합니다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겸용해 농업인과 기업, 연구기관 간 최상의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상주시 SANGJU CITY

한국자총 대구동구지회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동구지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2일 큰고개오거리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바로 지금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표어와 함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저감 방법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희목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장은 "회원들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운동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작은 실천들이 씨앗이 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 "민원공무원 괴롭힘 그만"...악성민원 원천봉쇄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 대응 강화 안내도 사진삭제, 공무원 보호강화

수성구는 악성민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지난 2일 발표했다.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수성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A담당은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부서를 옮길 때마다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 상담을 빌미로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쫓겨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시달리는 게 다반사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악성민원인의 횡포로 인한 피해는 비단 공무

원만 겪는 일이 아니다. 민원 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주민 B씨는 공무원에게 계속해 고성과 욕설을 하는 민원인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 청원경찰의 만류에도 계속된 고성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종료됐는데 놀란 마음은 하루종일 진정되지 않았다. 수성구는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악성민원 전담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 운영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악성 민원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성

구는 이달부터 전담 안전요원을 채용해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치했다. 민원실 내 상시 근무하는 안전요원은 악성 민원인이 위협 행동을 보이면 주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녹화·녹음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비 등 법률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구의원, 공무원노동조합, 변호사, 현직경찰, 심리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그동안 추진해 온 공무원 보호·지원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앞으로 악성 민원인 고발 등 법적 대응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피해 공무원이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닌, 구청이 주체가 돼 기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악성민원인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최근 공무원 개인 신상정보의 과도한 공개로 악성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부서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안내도에는 사진을 삭제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수성구는 비상대응반 편성, 경찰 합동 비상훈련 실시, 특이민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직원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등 안전

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45대를 도입하고 올해는 민원 접점 부서에 16대를 추가로 배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상설 운영과 특이민원 피해공무원을 위한 의류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악성민원으로 행정력에 누수가 생기면 결국 민원행정서비스 악화로 이어지므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 첫 시범사업 시작

시범사업 올해만 세 번째 선정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지원

달성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복지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사업'은 기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을 제때 해소하지 못했던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복지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소통 간격을 최소화하여 현장 중심의 위기발굴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위험요소인 실업, 질병에 의한 소득감소 및 고령, 부양의무자의 상실,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본인 또는 이웃의 위기상황을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에 사용되는 '복지위기 알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앱에 인적사항, 위기상황, 주변사건, 요청내용 등 세부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면, 군에서 위기 알림 내용에 따라 △대상자 확인 △유선 및 방문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복지위기 알림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대상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현재 시범운영 중인 또 다른 사업, 'AI 초기상담 서비스'와도 연계가 가능하다.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사업'은 이후 6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복지로, 네이바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편익점, 집배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시스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조여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달성군 하빈면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방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달성군 하빈면 대구농수축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지를 현장 방문했다. 이전할 대구농수축산물도매시장은 총사업비 4100억 원 규모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편리한 물류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도매시장으로서 영호남을 아우르는 거점 도매시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첨단 시설의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고, 물류의 중심이 되도록 교통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매시장이 하빈면과 달성군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행복쇼핑 '2024년 5월 동행축제' ... 대구시가 함께한다

지역경제 활력 소비촉진 행사 개최
온라인몰, 전통시장, 지역축제 함께
대구시는 '2024년 5월 동행축제'를 맞아 온라인몰,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로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동행축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유통사·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과 정부·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다. 올해 '2024년 5월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가을(9월)과 겨울(12월)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4년 5월 동행축제'에 맞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온라인몰의 경우 대구·경북장애인기업제품 소량몰인 '우리몰', 대구광역

시 인증브랜드관 '쉬메릭', 약령시 한방제품 특별화물인 '약령몰'에서 할인 쿠폰 지급, 사은품 증정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쉬메릭'은 행사 기간 중 전 상품에 대해 무료 배송 서비스와 가족사진 인증 이벤트를 운영하고, '약령몰'은 신규회원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추가 발급하고 오프라인 픽업 시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몰'은 오는 17일부터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분실공고

분 실 내 용 :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발코니전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105동603호
수성구 수성로 35길 50
공 고 인 : 권용범 010-6666-9121

분실공고 이후 무효임
2024년 05월 03일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 2024

K-SHOPPING FESTA

2024.5.1-5.28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5월 7일 화요일 3



경북도, 102회 어린이날 행사...이색 체험 순서 다양

경북도가 5일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경북도청 새마을 광장과 천년 숲 일원에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함께 열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아동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했고, 도청 인근 호명초등학교, 풍천풍서초등학교 어린이 100여 명이 함께 참가해 어린이날을 축하했다.

기념식에서는 어린이합창단의 어린이날 노래를 시작으로 어린이 대표의 아동권리현장 낭독, 객석토크, 어린이날 주제영상 상영, 어린이날 기념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댄스팀 공연과 버블 아트쇼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한국생활개선회경북도연합회성금전달(배말란 고령군회장, 김옥련 경주시회장, 박병애 도연합회부회장, 이철우 지사, 홍말순 도연합회 수석부회장,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손병일 공동모금회사무처장)



한국농촌지도자경북도연합회 성금 전달(손병일 공동모금회사무처장, 박원규 감사, 노주용 부회장, 장호원 회장, 이철우 지사, 진의환 수석부회장, 김윤성 부회장,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



경북도청·경북체육회 선수단 성금성금 전달(김구환 감독, 손병일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민섭선수, 박현수 선수, 이철우지사, 김민준감독, 이상학 체육회 사무처장)

경북 저출생과의 전쟁 성금 활화산...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 저출생 극복 성금 2천만원
도청·경북체육회 선수단 저출생 극복 성금 1550만원

경북도내 저출생 극복 성금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경북도연합회와 한국생활개선경북도연합회는 지난 3일 경북지사 접견실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신기술 보급과 농업 현장의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탄소중립 실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정책사업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장호원 농촌지도자도 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저출생 극복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과의 전쟁 승리를 응원하며 힘을 보태

고자한다"고 말했다. 기부에 함께 참여한 김숙자 생활개선회도 회장은 "농촌 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육아 사업을 시행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저출생 극복 사업에 도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농업 농촌을 묵묵히 지켜오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온 지역사회의 리더인 두 농업인 단체가 경북도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저출생과의 전쟁에 적극 나서 기부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금으로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지난해 8월 경북지역 수해 발생 시에도 피해지역을 방문해 복구에 일손을 보태고, 성금 2천여 만 원을 모아 전달한 바 있다.

경북도청 및 경상북도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3일 경북도청을 방문, 저출생 극복 성금 1550만원을 전달했다.

모금은 지난 3월 경상북도체육회 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 국민 만원이 상 기부 운동' 모금 활동을 계기로 감독과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시작했다.

선수단은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희망 릴레이 챌린지, 울진산불 피해복구 성금, 2023년 국한호우 이웃돕기 성금 등 지역 내 기부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번 모금도 지도자와 선수 전원이 선뜻 마음을 모았다.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성금 500만원을 쾌척한 조정 국가대표 박현수(경북도청·30) 선수는 "내년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 주거나 돌봄 문제에 대해 남 일처럼 생각할 수가 없었다. 기부라는 마음보다 예비 신혼부부인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흔쾌히 모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수영 국가대표 김민섭(경상북도체육회·20) 선수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서 세운 한국 신기록 포상금 200만원을 전액 기부했다.

전남 출신인 김민섭 선수는 "경북도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았다"며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모금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기부를 결정했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선수단(18개팀 123명) 전원이 모금에 참여해 조성된 성금 1550만원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가올 파리올림픽, 전국체전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선수단 전원이 동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2070년까지 경북을 인구 1등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0.1%p 오른 30.3%...

총선후 3주연속 하락 차단
영남↓ PK 30%, TK 36.4%
"채 상병 특검 협치 급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1%포인트 오른 30.3%로 나타났다.

4·10 총선 이후 3주간 이어진 하락세가 가뭄했다.

이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5월3일까지 4일간(근로자의날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묻은 결과 '잘함'이 30.3%, '잘못함'이 65.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3%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 37.3%에서 32.6%(4월 2주차)→32.3%(4월 3주차)→30.2%(4월 4주차)로 3주 연속 하

락하다가 이날 0.1%포인트 오르면서 20%대 하락을 막았다.

부정평가 역시 전주 66.9%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이날 1.4%포인트 내린 65.5%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지지율이 오르고 영남과 서울 지지율이 내렸다.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전주 대비 6.9%포인트 오른 40.9%, 광주·전라 지지율은 1.4%포인트 오른 18.6%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3.1%포인트 내린 30.2%, 대구·경북(TK) 지지율은 1.5%포인트 내린 36.4%로 집계됐다. 서울 지지율은 3.0%포인트 내린 27.0%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2.8%포인트 오른 29.3%, 30대에서 1.9%포인트 오른 29.1%로 청년층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반면 4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2.4%포인트 내린 19.8%, 50대 지지율은 1.0%포인트 내린 26.8%로 집계됐다.

道, 첫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7~12월,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경북도가 올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도는 지난 4월 발표한 경북도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600여 명의 외국인 아동(3~5세)에게 보육료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도가 실시한 '경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

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세)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어 유치원과 똑같이 무상 지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수 등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2월에는 시군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한다.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어린이집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괄 취합 후 어린이집에서 해당 시군 보육부서에 전달되고, 최종 시군에서 서류 심사 후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교부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道, 가정의 달 '고향사랑기부 1+1+1' 경품 행사

5월가정의 달 고향사랑기부제 관심 높이고 기부자 만족도 ↑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 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시기 분산, 기부자의 만족도를 올리는 1+1+1 경품 행사를 한다.

행사는 7~6월 7일까지 한 달간이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경북도 '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 및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행사기간 중 총 당첨 인원은 40명이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경북도 누리집에서 공지 또는 개별 안내한다.

당첨자는 기부 금액대 별로 차등해 3~10만원 상당의 개인이 직접 선택한

경북도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여름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 등 시즌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향 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경북도로 기부하는 수요도 증가시킨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고향 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지만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금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4 영천 한약 축제
행사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제22회 영천한약축제 with 작약꽃

2024. 5. 17(금) ~ 5.19(일) 영천한의마을 일원

경상북도 영천시

주최 | 영천한약축제위원회 주관 | 영천한방산업발전협회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8일 시행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은 8일 오전 8시40분부터 지역 74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의 대학 수능능력시험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한다.

6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등이다.

1교시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을 응시한 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 후 응시하게 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도 공통과목을 먼저 응시한 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3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구축 팔걸어

대구시교육청, 2024학년도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대구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올해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사업 대상 학교 35교(초 12교, 중 11교, 고 12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을 추진, 초 83교, 중 79교, 고 42교 등 총 204교에 구축 완료했다.

지능형 과학실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과학 탐구실력 및 융·복합적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과학학습 공간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선정된 35교에 교당 최대 7천만 원씩 총 18억 5000만 원을 지원, △협력수업 환경 구축(스마트 TV, 조별 모니터 등 관련 기

자재 구축 등) △지능정보 기술 활용 환경 구축(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교구, AR, VR 기기 확충 등) △안전한 과학실 환경 구축(안전 설비 교체, 개인 안전장구 확충 등) △과학실 환경 개선(노후 시설 정비 및 비품 교체) 등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방법 개선 및 탐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원 대상으로 지능형 과학실 활용 연수를 실시하고, 지능형 과학실 교육 활동 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올해는 지능형 과학실 ON 실천교사 30명을 선정, 지능형 과학실 ON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설계·운영 및 성과 확산에 주력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미래지향적 과학실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실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제 중심, 자기 주도 탐구기반 융합수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주한 미군 군인 영어동화책 읽어주는 날~!

대봉초, 사랑나눔 교육기부 영화 동화 읽기 운영 인기

대구대봉초등학교는 5-12월까지 8개월간(방학 제외) 월 1회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4지역대 미군 및 카슈사와 함께 하는 ‘영어 동화 읽기’ 교육기부 행사를 운영한다.

행사는 대봉초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캠프 핸디 주한 미군과 카슈사 분들의 재능기부로 실시되는 봉사활동이다.

대봉초 교사 및 원어민 강사와 캠프 핸디 장

병 20여 명이 공동으로 교육활동을 기획, Team-Teaching으로 영어 수업이 진행된다.

3-4학년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의 동화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직접 발화하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학생들의 영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 데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수업은 미군들과 카슈사 2명이 1팀을 이뤄 진행된다.

동화와 관련된 영어 노래 배우기, 퀴즈 풀기, 역할극 해보기, 책을 읽고 녹음, 발음 들어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

힐 수 있도록 진행했다.

교육기부에 참여한 미군 소령 Raphia R. Russell은 “대봉초 학생들과 함께한 수업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활기찬 에너지에 깜짝 놀랐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었고,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열망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경돈 교장은 “학생들이 영어를 더 친근하게 여기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집중 단속...26명 붙잡아

폭주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지속 단속...

대구경찰청은 어린이날 폭주족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총 26명을 붙잡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 주요 집결지 13곳에 교통경찰과 사이드카, 기동대, 안행수찰팀 등 177명을 배치했다.

경찰오토바이 및 순찰차, 기동대버스, 비노출 차량 등 66대를 집중 배치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뀌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대구경찰청은 음주운전 5건을 포함해 무면허운전 2건,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운행) 2건, 통고처분 17건(안전모미착용 7건·중첩 4건·신호위반 2건·통행금지 1건·기타 3건) 등

모두 26명을 붙잡았다.

대구경찰청은 체재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 후 엄정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시민들이 가장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수단으로 느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많은 불편을 주는 폭주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1절 폭주족 단속에 나서 자동차관리법 위반(무등록운행·번호판 가림) 3건, 통고처분(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중앙선 침범) 10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7건 등 총 2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 체재된 영상자료를 분석해 폭주행위 가담자 1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태용 기자

경북교육청, 국제교류 운영학교 매년 증가

2024년 국제교류 운영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경북교육청은 최근 안동그랜드호텔 그랜드홀에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

이날 도내 국제교류 운영 초·중·고 116교의 업무 담당자 130여 명과 경북글로벌교육추진단 소속 교원 14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 운영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담당자와 컨설턴트 간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안내, 컨설팅 방법, 각종 유의 사항 안내, 우수 학

교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국제교류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나 업무에 생소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로 업무 능력을 키우고,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공통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글로벌교육추진단을 운영,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경감과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지원, 방문 컨설팅으로 국제교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국제교류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의 국제교류는 방문·초청 교류와 온라인

교류, 블렌디드교류(온라인+방문·초청) 등의 유형이 있으며, 학교의 특색에 맞게 자율적인 주제로 운영된다.

올해는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수업 나눔 교류,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교류,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와 실천 교류, 이주 배경 학생(다문화 학생) 부모 나라 방문 교류 등을 주제로 지난해 보다 24교가 증가한 116교에서 국제교류 사업이 진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제교류 운영학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불리는 K-EDU 원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북경찰, 퇴계의 길에서 청렴을 잇다



퇴계 이황의 얼이 서린 도산서 인문학캠프 개최

경북경찰청은 안동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경북경찰청 청렴정책협의회 정기회의와 도내 청렴 선도그룹의 인문학 캠프를 동시에 진행했다.

김철문 청장은 “청렴한 공직자인 퇴계 이황 선생님의 얼이 서린 '도산'에서 청렴 행사를 진행하여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도내 각 경찰서에서 청렴 문화 확산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청렴 문화 확산의 가치관을 본받아 더욱 청렴한 경북경찰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렴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추진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 정책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정기회의에서 2024년 반부패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인문학 캠프는 도내 23개 경찰서 청렴선도그룹 대표자가 참여, 소통과 화합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문 철학 분야의 권위자인 대구교육대학교 장윤수 교수를 초빙, 청렴 특강을 했다.

장윤수 교수는 경북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대구교육대학교 윤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동양철학회 회장에 이어 대한철학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장 교수는 ‘퇴계이황의 청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퇴계 이황의 몇 가지 일화를 소개, 공직자로서 본받아야 할 ‘존중·배려·청렴’의 마음가짐을 일깨워주어 참석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총력!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구매 지원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최선

경북교육청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한다.

화장실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최근 다양·지능화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연 2회 이상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구매를 위한 6억 7700만 원의 예산을 단위 학교에 지원했다.

이번 5월 한 달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집중 기

간으로 지정,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15일과 22일 양일간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했다.

경북교육청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스마트기기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화장실 안심스크린은 지난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책으로 2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도내 567교에 설치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 심각성을 알리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분기 대구·경북 노동법 위반 신고 7300건...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와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구·경북에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는 7309건으로 지난해보다 26.6% 증가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306억 원보다 22.6% 증가한 3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국의 꾸준한 근로감독 실시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건과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해 강제수사·근로감독 강화 등 전방위적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대구노동청은 지역 내 법 위반 사업장 2720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전개해 나간다.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 선정...홍보, 판매 등 지원

경북도는 5일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해 업체당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은 안

동 '안동양반쌀', 상주 '풍년쌀골드', 문경 '재재정결미', 의성 '의성眞쌀', 고령 '고령 옥미', 예천 '맛나지에농협프리미엄미소진미'이다.

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200여 종의 브랜드 쌀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군 추천을 받은 9개 경영체의 브랜드 쌀을 전문가에 의뢰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경북 우수 브랜드 쌀' 6개를 선정했다.

코스피 (-7.02)	코스닥 (-1.89)
2,676.63	865.59
연화 (-8.64p)	유가 (+0.15)
884.67	1,712.79
환율 (-9.00%)	금(金) (-1,810.53)
1,362.00	99,930.93

DGB금융그룹, 2024 1분기 당기순이익 1117억 달성

철저한 내부통제 내실 경영 자산건전성 안정화 총매진

DGB금융그룹이 실적발표를 통해 2024년도 1분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1117억원을 달성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1680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한 수준이다. 핵심이익인 이자이익은 양호했으나 지난해 1분기 비이자이익(1940억원) 호조세의 여가져 효과와 부동산 PF 등 취약 익스포저에 대한 손비용 증가가 실적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그룹 실적은 시장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으나

핵심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의 실적은 나름 선방했다. DGB대구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1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보수적인 총당금 적립 기조가 이어진 결과다. 견조한 원화대출 성장(전년 동기 대비

+10.0%)으로 이자이익은 크게 증가했으며 비이자이익 또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은행 대출자산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향후 대손비용이 안정될 시 은행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투자증권과 DGB캐피탈 당기순이익은 각각 -49억원, 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

소했다. 부동산 PF 등 취약 익스포저에 대한 대손충당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 속 철저한 내부통제와 내실 경영을 통한 자산건전성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새 아파트 7000가구 쏟아진다...

수성 6개 단지 2030가구
북구 2개 단지 1822가구
달서 1개 단지 1498가구



올해 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7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분양이 전무했던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최근 분양된 수성구 '범어아이파크'가 높은 경쟁률 속에 청약 마감한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 전문 광고 대행사 에드메이저가 올해 대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을 조사한 결과 14개 단지, 6943가구(조합원 물량 1985가구 포함, 오피스텔 제외)다. 이중 후분양 물량은 9개 단지 3628가구, 선분양은 5개 단지 3315가구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2030가구(6개 단지)로 가장 많고, 북구 1822가구(2개 단지), 달서구 1498가구(1개 단지), 동구 740가구(2개 단지), 중구 613가구(2개 단지), 서구 240가구(1개 단지) 순이다.

수성구에 물량이 많이 몰린 것은 수요자의 주

거 선호도가 높아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선보인 '범어아이파크'가 높은 경쟁률 속에 청약이 마감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82가구 모집에 1370건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7대 1, 최고 경쟁률 32.9대 1(84㎡A)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이런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지난 3일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1·2차'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대구신세계백화점과 도시철도 엑스코션 연장 확정에 따라 동대구로 주변도 새로운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의 올해 전체 분양 물량 중 34%인 7개 단지 2352가구가 이곳에 몰려 있다.

2022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북구 학정동 칠곡지구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시티'는 1098가구로 올해 분양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대구에서 1년 5개월 만에 선분양으로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이달 중 분양한다.

북구 칠곡지구는 2019년 4월 매진된 '한신더휴' 입주 이후 5년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두석 에드메이저 사장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이나 공급이 없던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에 나서는데 만큼 초기 분양 결과가 성공적이면 올해 신규 분양 시장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여은 기자

한수원, 루마니아 원전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

계약 전 인프라 설계 사전 착수로 사업 기간 최적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본사에서 캔두 에너지와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1호기의 설비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체르노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은 30년 계속 운영을 위한 압력관(경수로 원전의 원자로에 해당하는 설비) 등 주요 설비 교체, 인프라 건설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Ansaldo Nucleare)와 3차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 본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윤용찬 기자

경북우정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

경북우정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한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는 아동들이 편지를 작성해 아동양육 시설에 설치된 소원우체통에 넣으면 소원선물을 전달하는 우체통 공익사업이다. 경북우정청은 지난 2일 대구 동구 소재의 육영학사를 방문, 소원편지를 보낸 아동 15명에게 답장과 함께 각자의 소원에 맞는 소원선물(총 15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소원선물은 평소 아동들이 갖고 싶어 했던 악기, 의류, 신발, 장난감 등이 포함됐다. 김동락 사업지원국장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는 아동들이 편지를 작성해 아동양육 시설에 설치된 소원우체통에 넣으면 소원선물을 전달하는 우체통 공익사업이다. 경북우정청은 지난 2일 대구 동구 소재의 육영학사를 방문, 소원편지를 보낸 아동 15명에게 답장과 함께 각자의 소원에 맞는 소원선물(총 15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소원선물은 평소 아동들이 갖고 싶어 했던 악기, 의류, 신발, 장난감 등이 포함됐다. 김동락 사업지원국장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실상 방치...

김대현 대구시의원 2022년 12월 갑작스레 단계별사업 전환한 뒤 아직까지 어떤 계획도 수립하지 않는다 주장



의와 정책 점검을 거쳐 복합환승센터 건립, 순환선을 통한 접근성 개선 등 종합적인 서대구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행정상의 이유로 들며 사실상 방치됐다"라고 지적했다.

김대현(사진) 대구시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대구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변 악취 문제에 대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오랜 기간 사회적 합

그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2020년부터 1차 협상 대상자와 민간공동방식의 개발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갑작스레 단계별 사업으로 전환한 뒤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대구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던 도시철도 순환선의 원점 재검토,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면수 등 방치된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의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별도의 주차장 부지 마련과 셔틀버스 운행 등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하폐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등 인접한 악취원으로 인해 서대구역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곤혹을 겪어왔던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대구역세권의 변화는 대구시의 새로운 도약"이라며 "하폐수시설을 통합 지하화하는 등 각종 악취원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순환선 연결 같은 각각의 사업이 계획적이고 유기적으로 맞물려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미경 기자

NH NongHyup 농협 NAVER의 D 농협 NONGHYUP 김새라 김새라 농협파머스마켓 NH농협은행 nhfm.co.kr

농협파머스마켓

http://nhfm.co.kr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전문쇼핑몰



경주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10일까지 접수

경주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안전차단기인 '타이머록' 무료 보급 사업을 올 12월까지 추진한다. 타이머록은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

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주위 온도가 3분간 70~80℃ 지속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다.

시는 28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00가구 규모로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록)를 설치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국 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서 위탁 시

행한다. 신청은 이달 1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6390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록)를 설치했다.

경주시, '44억' 투입 신농업혁신타운 건립

농기계 30종 100대 추가 구입 균형 잡힌 농기계 임대서비스

경주 신농업혁신타운 내 들어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공사가 지난달 본격 시작했다. 시는 44억 원 예산을 들여 내남면 상서리 신농업혁신타운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건립을 올 9월까지 추진한다. 30종 100여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해 10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본소는 7500㎡ 터에 건축 연면적 1468㎡ 규모로 농기계 보관창고, 사무실 및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건립이 완료되면 내남에 들어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역 전체 농기계 서비스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기존 서악 본소는 본소로 운영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가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임대농기계 이용률도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토일요일 등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이용 안전교육과 현장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는 총 1만1153대, 농기계 배송서비스는 월 평균 20건으로, 총 246건을 기록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서악, 문무대왕, 불국, 안강 등 총 4곳에 운영되고 있으며, 89종 1027대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가 준공되면 내남면 및 인근지역에 저렴한 농기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업무 효율성과 운영에도 크게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방문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방문, 지난 2일 경주 힐튼에서 환영 행사를 하고 있다.

2025 APEC 개최도시 선정 현장실사 대비 총력

이달 예정된 현장실사 대비 유관기관 종합전략회의 가져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에 대비해 부서 및 유관기관 종합전략회의를 갖고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APEC경주 유치추진단장인 김성학 부시장 주재로, 도로, 교통, 안전, 환경 등 10여개 관련 부서와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경주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개최도시 선정 현장실사 대비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실무회의는 지난달 19일 유치신청서 제출에 이어 이달 중 예정된 현장실사에 완벽히 대비하

고자 마련했다. 부서 및 유관기관별 주요 시설 인프라와 예산 동선 내 주변 관광정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사단 브리핑과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검토 등 현장실사에 대비한 종합적인 전략회의로 진행됐다.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된 단 하나의 도시라는 메시지가 현장실사단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사 프로그램을 기획, 시민의 유치 의지와 열원이 담긴 환영 분위기 조성하고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APEC정상회의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의 현장실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체 예행연습을 반복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인 회의·숙박·문화·의료·공항 시설에 대해 실사대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성학 부시장은 "향후 현장실사단 방문 시 다른 경쟁도시와는 다른 경주만의 차별화된 준비로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점검으로 미비한 부분을 사전 보완하고, 경주가 반드시 APEC 정상회의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라 선화공주 백제 서동왕자 혼인... 동서화합

'2024 서동축제' 기간 경주-익산 상호 방문 영·호남 화합·교류

신라 대표도시 경경주와 백제 대표도시 익산이 지난 3~6일까지 4일간 열린 '2024 익산서동축제'로 영호남 우의를 다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종오 시의장을 비롯한 익산시민 방문단 40여명이 서동축제 개막 전날인 지난 2일 경주를 찾았다. 방문은 신라 선화공주와 백제 서동왕자가 혼인을 맺었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서동축제 기간 경주를 찾아 선화공주를 모신다는 의미다. 이들은 이틀간 경주에서 머물며 환영 행사와 문화유적지 탐방, 선물 교환 등 우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방문 첫날인 2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환

영만찬에 참석해 자매도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환영만찬에는 경주-익산 두 도시 시민교류단 100여명이 참석해 영호남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에서 "1400년 전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처럼 양도시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변함없는 교류로 인연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답사를 통해 "경주와 자매도시의 인연을 맺은 후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받았다"며 "앞으로 두 도시가 동서 화합으로 우정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경주시와 익산시는 이 같은 신라공주와 백제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난 1988년 친선을 위한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25년간 '사동 도시'로 협력해왔다. 시는 올해 기록적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익산시를 돕기 위해 밭차 등 구호 물품

을 지원하며 온정을 나눴다. 최근에는 익산시와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서동축제가 개막한 3일에는 경주 시민방문단 40여명이 익산시를 찾아 무왕행차 퍼레이드에 신라복을 입고 참여하면서 두 도시 간 우애를 다졌다. 익산 어양공원에서 익산중앙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800m 구간에서 펼쳐지는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서동축제 기간 가장 큰 행사다. 익산시는 이날 저녁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경주교류단을 위한 환영만찬을 열고 두 도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서동축제 기간 경주시는 2024 선택여왕선발대회 '진' 수상자 김인혜(25·여)씨를 선화공주로 선발해 교류단 사절단 자격으로 익산에 보내며 서동축제의 성공과 영호남 간 화합을 이어갔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제공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2024 대구광역시일보 & 경주보성마트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2024 찾아가는 대가야
꿈 찾기 진로캠프 운영

경북도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부터 6월 5일까지 "2024 찾아가는 대가야 꿈 찾기 진로 캠프(Dream Camp)"를 운영한다.

이번 진로 캠프는 관내 6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직업정보 알기, 신소재 산업 분야와 중요성 알기, 반도체, 조전도체,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등을 알아보기, AI 기술의 발전 알기, AI 산업의 적용 분야와 영향 알기, 신소재산업, AI 산업과 ChatGPT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진로 설정을 고민해 보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미래 산업과 교육의 주역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김호상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소재, AI, ChatGPT 등 맞춤형 진로 캠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자신의 꿈과 목표를 바탕으로 진로와 진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영천시, 제102회
어린이날 큰잔치 개최

영천시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영천강변공원에서 제102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야외에서 행사는 코로나 이후 5년만이다.

행사는 개회선언, 어린이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표창 수여, 축구공 선물, 어린이날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에는 육군3사관학교 군악대 연주, 독도사랑 스포츠공연단의 태권도 군무 등 시간과 장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소방경찰체험, 목공예체험, 비즈공예체험, AI로봇과 놀아요, 우드마커스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체험활동 부스가 어린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가족과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가족네트 부스와 아이스크림, 슬러시, 팝콘을 무료 제공하는 먹거리 부스 등이 인기가 많았다.

최은하 기자

의성군, 세포배양식품 산업 중심지로 거듭난다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선정 세포배양식품에 본격적인 실증나서

의성군이 미래 세포배양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의성군 일원이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로서 살아있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살코기를 만드는 배양육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돼 의성군이 미래 세포배양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에 의성군은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1일 경북도청 다목적실에서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시작으로 세포배양식품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이나

선다. 미래 먹거리 개발의 전진지가 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의성군 의성을 철과리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지정됐다.

오는 2025년부터 2년간 국비 124억 원, 지방비 53억 원, 민자 22억 원, 총 199억 원이 투입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며,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을 일정 기간과 구역 내에서 핵심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 진출의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이다.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라트바이오, 다나그린, 씨위드, 마이크로디지털, 티센바이오, 마이너, 엘엔케이, 에스에스바이오랩,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10개사가 세포배양식품 실증에 참여한다.

군은 이들 핵심 기업과 함께 특구 내에서 그동안 동물복지로 인해 쉽게 할 수 없었던 행위, 다시 말해 살아있는 가축에서 조직 일부를 채취하거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당일 도축된 원육에서 조직을 채취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아 배양육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된 세포를 배양해 고품질의 배양육을 생산할 계획이다.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는 크게 두 개의 실증사업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가 식품용 세포은행 구축으로 이는 세포배양식품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축의 세포를 다양한 축종과 부위별로 제공할 수 있는 전용 축사 및 도축 시설을 마련하고 축산물로부터 얻어진 세포를 장기간 보관, 증식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실증이다.

두 번째는 대량 생산 및 상용화 실증으로 지금

까지 세포 배양육은 연구실 단위로 제작되었지만 앞으로 비용 절감 등 세포 배양육 양산화를 위해 세포 특성에 최적화된 대량 배양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에 대한 실증이다.

군은 2015년부터 다져온 세포배양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포의 먹이에 해당하는 배지산업과 세포배양식품 산업을 연계하고 아울러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국산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지역 신산업 관련 전후방 기업 투자유치와 세포배양식품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참여기업들이 특구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선비문화도시 명성 '재확인'

과거와 현대의 소통의 도시 가득 채운 '선비의 신바람'

대한민국 대표 정신문화축제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6일 저녁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사흘간의 축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2'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문정둔치 일원에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 기간 영주시 곳곳은 선비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선비문화 도시 영주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축제 첫날인 4일은 영주시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 외국인 참가자 등 500여 명이 다양한 선비복장으로 함께한 전국발도 선비퍼레이드가 1.6km가량 이



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문정둔치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선비문화축제 주제공연, 교지전달 퍼포먼스에 이어 5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환호성을 자아냈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꽃은 날싸에 도립국악단과 국악인 박예리의 공연, △이창호 국수의 지도대극 △핑크풍과 아기상어의 댄스퍼티 △어린이 태권도와 합창단 공연 등 특별공연이 진행돼 가족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기간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는 △전

통놀이 △염색체험과 목공예 체험 △지역 특산물 플라마켓 △전통공연과 붓담뽀리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며, 선비세상에서는 △어린이 선비 과거시험 △열기구, 캠프닉 체험 등으로 활기를 더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어울림의 장이 마련됐다.

6일 폐막식에서는 선비&아트 공모전 시상식과 전설의 그룹 '아바의 현정그룹인 '아바걸스' 등의 축하공연으로 흥겨운 무대가 펼쳐져 관람객들이 마지막까지 축제를 함께 즐겼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 선비문화축제는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정신문화 축제라고 자부한다"며, "이번 축제에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현대적 의미의 선비정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을 되새기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전상기 기자

고령군민체육관 준공식 개최

고령군은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문화·체육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고령군민체육관 준공식을 가졌다.

고령군민체육관은 대가야읍 폐빈리 341-6번지에 총사업비 208억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3991㎡의 규모로 지난 2022년 8월에 착공, 지난 2일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고령군민체육관은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실내 스포츠 수요를 반영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800개의 관람석과 무대도 만들어져 실내 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도 가능하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계절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문을 열게 돼 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체육활동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문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동호인, 일반인들이 상호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지역 체육 활성화는 물론 젊고 힘 있는 고령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배영백 기자

청송군, 제35회 어린이날 걷기대회 및 놀이한마당 열려

청송군, 102주년 어린이날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할인

청송군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제35회 어린이날 걷기대회 및 놀이한마당 대축제'를 청송군민운동장, 청송군종합문화복지타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송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청송군, 청송군의회,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등의 후원으로 가족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신나고, 재미있고, 또 알차게 진행됐다.

가족과 함께 걷기대회 행사와 각종 공연(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래퍼 아웃사이드, 안동MBC어린이합창단, 마술, 댄스, 태권도 시범 등), 부대행사로 에어바운스 체험, 도자기 펜던트 만들기, 손거울 만들기 등 지역의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체험



도 이날 행사의 재미를 더했다. 특히 행운권 추첨을 통해 행사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푸짐한 선물을 받아갈 수 있어 한층 더 풍성하게 진행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가정의 화목과 가족간의 사랑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영주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화합의 날 행사 개최

필리핀 로살레스시 시장단 일행 자국민 계절근로자 방문 격려 재단법인 새마을재단과 함께

영주시는 지난 5일 올해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200여 명을 초청해 '2024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외 빈으로 지난 2일부터 영주시를 방문 중인 필리핀 로살레스시 윌리엄 세자르 시장 등 방문단과 박남서 영주시장,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등 시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윌리엄 세자르 시장의 영주시 방문은 지난해 4월 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두 번째이다.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 화합의 장에 양 도시 시장이 직접 찾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재)새마을재단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돼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은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부석사, 선비세상 등을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새마을재단이 추구하는 인류공동번영의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하고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계절근로자 및 농가주가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행사가 진행돼 고된 영농일정 가운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양 지자체·고용주·근로자간 상호 화합의 정신을 느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오늘 행사는 지난해 11월 28일 로살레스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체결 이후 1년여 만에 맞는 두 지자체간 뜻 깊은 화합의 자리"라며 "참석자 모두가 뜻깊게 새긴 화합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저출생 극복 성급 전달

경북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강덕 포함시장)는 지난 3일 봉화군청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공공사업으로 분할된 토지 원상 회복 관련 법령 개정 △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정 △산불 진

화 행기 임차 운영예산 지원 확대 △실효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 △지자체 직접 시행 사업의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 면제 허용 산지 관리법 개정 등 총 6건의 건의 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 포항국제불꽃축제', '2024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제19회 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 등 시·군 홍보사항을 공유했다. 정례회 폐회에 앞서 경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포항 국제 불꽃쇼 1000대 드론쇼...

축제 관람객 편리함 안전 강조 축제 완성도 높이기 전력투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2024 포항국제불꽃축제' 개최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2004년 첫 개최 이후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 포항국제불꽃축제'는 오는 31~6월 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장상길 부시장 주재로 한달여 앞둔 '2024 포항국제불꽃축제' 부서별 준비상황 점검보고회를 가졌다.

포항문화재단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20여개 부서별 준비 상황 보고를 바탕으로, 포항남북부경찰서, 포항남북부소방서, 포항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행사대행사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시는 축제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

축제프로그램·교통·안전관리·연계행사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문화재단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한다.

올해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영일교·포스코 야경과 아우러진 '그랜드피날레(한국)'에 더해 최초로 관람객이 불꽃쇼 우승팀을 선정하는 영국·호주·중국 등 3개국 이 참여하는 '국제불꽃경연대회'가 펼쳐진다.

1000대의 드론쇼로 밤하늘을 밝히는 '불빛드론쇼'가 특별하게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불을 활용한 서커스인 '파이어 드림시어터'와 공중에서 빛과 함께 펼쳐지는 '플라임 퍼포먼스' 등 불과 빛에 특화된 새로운 축제콘텐츠를 포함해 불빛체험존, 팡스타랑, PH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장상길 부시장은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포항국제불꽃축제를 위해 관계부서·유관기관 모두 자긍심을 갖고 성공적이고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은 한달여 간 관람객들의 관점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형명 기자



공검면, 첫 모내기 풍년농사 대박기원

상주시 공검면은 지난 2일 공검면역곡리에서 올한해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첫 모내기를 했다. 모내기를 한 공검면역곡리 이모 씨는 공검면에 수도작 규모가 가장 큰 농가이며 품질 좋은 벼를 생산하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 공검면 체육회원 등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다.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공검면의 본격적인 모내기는 6월 초까지 진행된다 (사진=상주시제공)

상주시, 우수외국인 채용설명회 뚝뚝뚝

국내 대학 석박사, 전문직, 자격증 보유자 등 다양한 우수외국인 모여

'지역특화형 비자(F-2-R/F-4-R) 체류자격 교육 및 채용설명회'가 지난 2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수외국인 50여명, 상주시 관내 16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우수외국인의 관내 기업체 탐방,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자격 안내, 참여 기업체 취업 상담순으로 이뤄졌다.

관내 기업체 탐방에서는 울릉, 동천수, 현대과이프 등 지역 주요 기업에 방문했다.

별도의 한국어 통역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후 진행된 취업 상담에서는 기업경쟁력, 근무

무여건 등 대해 상세하게 문의하는 등 상주시 취업에 대해 열의를 보였다.

교육에는 국내대학 석·박사, 반도체·전자산업 전문직종 종사자, 운전면허·지게차 등 각종 자격증 보유자 및 한국 영주권 취득희망자 등 다양한 국적과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참여했다.

외국인 A씨는 "매번 비자연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만 취득하면 한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아내와 함께 일하고 정착할 수 있다. 오늘 교육에서 좋은 기업을 소개받아서 꿈이 이뤄질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했다.

지난 4월 우수외국인 근로자 2명을 채용한 H업체 관계자는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이라서 그런지 한국어로 자유롭게 의사소

통이 가능하고 근무에 대한 열의를 보여서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더 많은 우수외국인을 채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전국 2시간대 교통망, 향후 중부내륙 고속철도 준공 시 수도권-국제공항 등 한국 주요 도시에 1시간대로 접근할 수 있고, 지역에는 이차전지 클러스터 및 한국 뿌리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주시는 외국인이 방문, 거주, 취업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함께 갖춘 최적의 시기에 더 많은 우수외국인이 상주시에서 코리아 드림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행사는 경북도와 상주시가 주관, K-드림외국인센터가 주최했다. 이경호 기자

구미시, 장애인 복지 시책 '눈에 띄네'

도내 최초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연계 주택 운영...장애인 복지선도

구미시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연계 주택 운영, 무장애 도시 조성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구미시의 등록 장애인은 총인구의 4.23%인 1만7141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포용과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연계해 직업훈련생을 위한 주택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연계 주택'은 현재 남녀 각 1개소를 운영, 총 6명의 훈련생이 생활 중이다.

주택 중 60%가 취업에 성공했다.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모범적 다부처 협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고향 사랑 기금을 연계, 장애인 돌봄 공백 제어를 위한 '긴급 돌봄 사업'을 운영해 장애인 보호자의 병입, 입원, 경조사 등 가구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를 대신해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 1일 4시간, 연 50시간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대구·경북 최초로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에서 지정했다.

구미 시민과 함께 인근 지역의 여성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기존 특별교통수단(부름콜)과 함께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영업 택시가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하며, 비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8시부터 22시까지 운행 중이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는 9개 장애인 단체(시각, 농아, 지적, 지적, 교통, 척추, 부모회, 신장, 뇌 병변)의 30여 개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총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단체들은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능력개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는 각 단체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최대 1억 원의 사무실 전세보증금과 최대 50만 원의 월 임대료를 지원 중이다.

시는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전체 인구의 21%에 달하는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미형 무장애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행환경 △교통시설 △휴식 문화시설 등을 개선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신규 시책 발굴·지원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단단한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이웃으로 함께 살기 좋은 구미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제9회 예천전국가요제... 모두 즐거워했다

용두산 엘레지 부른 10살 최연소 출연자 윤운서 양 대상수상 상금 400만원 받아...

제9회 예천전국가요제가 4일 2024 예천활축제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예천전국가요제는 우리 대중가요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예천의 대표적인 가요제로(사)한국예천예술인총연합회(회장 채희삼)가 주관했다.

지난달 14일 148명의 예시참가자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6팀의 경연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상은 용두산 엘레지를 부른 10살 최연소 출연자 윤운서 양이 수상해 상금 400만 원을 받았다.

금상은 김규민씨(청주), 은상은 이환욱씨(김천), 동상은 박지혜씨(거창), 가창상은 곽태영씨(예천), 인기상은 이세희씨(예천)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윤운서 양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축하무대는 불타는 트롯맨 정다한, 내일은 미



제9회 예천전국가요제가 지난 4일 2024 예천활축제장에서 열렸다. 이날 김학동 예천군수가 행사장에 참석, 웃음을 보이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스트롯 백수정, 지역가수 미아, 장태수가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전국가요제가 신인 발굴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명옥 기자

'문경 찾사발축제'에 울려 퍼진 문경새재아리랑

문경찾사발축제가 막바지를 향한 시점인, 지난 4일 문경새재오픈세트장 광화문 옆 주무대에서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가 주관한 국

악 공연이 펼쳐졌다. 5월 첫 연휴 첫날 나들이나 오신 관광객들이 관중석을 가득 매웠다.

열정적인 무대와 환호하는 관객이 하나 되는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공연의 주제는 '아리랑'으로서, 찾사발축제를 찾아오신 관광객들을 흥겹고 즐겁게 하는 다양

한 공연을 준비했다. 문경새재아리랑이 '근대 아리랑의 시인'이고 아리랑고개 문경새재라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리랑도시문경시민위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아리랑을 보급하고 확산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번 공연도 그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했다. 공연 사회는 황동철 이사가 진행, 한두리국악단이 협연, 함께한 해금, 장고, 징, 북, 피리, 태평소, 가야금이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첫 순서로 공연해설을 겸해 문경새재아리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만우 위원장이 '문경새

재아리랑 유래 및 특성'을 짧게 설명했다.

한두리국악단의 반주로 한복을 곁에 입은 아도위함장단이 문경새재 아리랑, 문경풍년아리랑, 본조아리랑을 부르고 난 뒤 소속 국악인 3명이 노래가라, 태평가, 장부타령으로 분위기를 돋구었다. 김동수 기자

‘세계 천식의 날’ 미세먼지·황사 노출 피해야

5월 7일은 ‘세계 천식의 날’(매년 5월 첫 번째 화요일)이다. 세계천식기구(GINA)가 천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98년에 제정했다. 천식이 최근 들어 국내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천식 환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67만8천150명에서 2022년 86만7천

642명으로 27.9%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월 환자 수가 전년 전체 환자 수보다 39% 늘어난 142만3천45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천식 환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식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이 중요하다.



김천상무, 수중전 속 무승부... 6경기 무패 달성

하나은행 K리그1 2024 11R
인천과 수중전 2대 2로 비겨

김천상무가 인천과의 수중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6일 김천상무프로축구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1R 경기에서 2대 2로 비겼다.

김천상무는 먼저 2대 0으로 앞섰지만, 후반 내리 실점하며 아쉽게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했다. 다만, 이번 경기 무승부로 K리그1 6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우며 위안을 삼았다.

김천상무는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다.

골키퍼 장갑은 김준홍이 썼고 포백은 박민규, 김봉수, 김민덕, 김태현이 구성했다.

중원은 첫 선발 출전한 서민우를 필두로 원두재, 강현목이 형성했다.

선봉에는 정치인, 이영준, 김대원이 스리톱을 맡았다.

이날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는 수중전 속 김천상무는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으며 리드를 잡았다.

전반 5분 만에 인천 페널티 아크 앞에서 패스를 받은 김대원이 슈팅 공간을 만들어 때린 중거리슛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프로축구 K리그1 김천상무의 김대원.

김대원의 김천상무 데뷔골이었다. 이른 리드를 잡은 김천상무는 역습으로 인천의 골문을 노렸다. 전반 18분, 정치인부터 시작된 역습으로 김대원을 거쳐 강현목까지 이어졌으나 득점에는 실패했다.

곧이어 전반 25분에는 인천 지역에서 연계플레이를 통해 이영준이 올린 크로스를 정치인이 헤더로 마무리했지만 골대까지는 거리가 있었다. 김천상무는 계속해서 추가골을 노렸다.

전반 40분, 수비 진영에서부터 빠르게 역습을 전개한 김천상무는 왼쪽 측면에서 정치인이 김대원을 보고 올린 크로스가 다소 길며 아쉬움을

삼겼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더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원두재의 통킵을 이영준이 헤더로 이어졌고, 김태현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침착하게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쳤다.

후반 62분, 인천 진영에서 상대 패스를 가로챈 강현목이 직접 슈팅을 때렸지만 살짝 빗나갔다. 이어진 공격에서는 원두재가 길게 갈라주는 패스로 왼쪽 측면의 정치인에게 패스로 연결했고, 정치인이 안으로 파고들며 오른발 슈팅까지 때렸으나 골대 위로 벗어나고 말았다.

고삐를 당긴 김천상무는 강현목이 인천 진영 깊숙한 곳에서 뺏아낸 공을 이영준에게 연결하며 추가득점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위기가 이어졌다.

후반 76분, 코너리 상황에서 파울이 VAR로 페널티킥으로 선언되며 실점하고 말았다.

인천에 만회골을 내준 김천상무는 후반 85분 인천 수비 진영에서 길게 방출된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동점골까지 헌납했다.

김천상무는 끝까지 경기를 뒤집기 위해 분발했으나, 역전에는 실패하며 2대 2로 경기를 마쳤다. 김천은 오는 12일 울산 HD FC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김천상무는 후반전에도 이른 득점으로 인천과 격차를 2대 0으로 벌렸다.

후반 56분, 인천의 코너킥을 끊어내고 김대원이 하프라인부터 드리블로 빠르게 치고 들어갔다. 인천의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낮게 올린 공을 이영준이 침착하게 밀어 넣으며 추가골에 성공했다. 추가골에 성공한 김천상무는 인천을 강하게 압박했다.

후반 62분, 인천 진영에서 상대 패스를 가로챈 강현목이 직접 슈팅을 때렸지만 살짝 빗나갔다.

이어진 공격에서는 원두재가 길게 갈라주는 패스로 왼쪽 측면의 정치인에게 패스로 연결했고, 정치인이 안으로 파고들며 오른발 슈팅까지 때렸으나 골대 위로 벗어나고 말았다.

고삐를 당긴 김천상무는 강현목이 인천 진영 깊숙한 곳에서 뺏아낸 공을 이영준에게 연결하며 추가득점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위기가 이어졌다.

후반 76분, 코너리 상황에서 파울이 VAR로 페널티킥으로 선언되며 실점하고 말았다.

인천에 만회골을 내준 김천상무는 후반 85분 인천 수비 진영에서 길게 방출된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동점골까지 헌납했다.

김천상무는 끝까지 경기를 뒤집기 위해 분발했으나, 역전에는 실패하며 2대 2로 경기를 마쳤다. 김천은 오는 12일 울산 HD FC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EPL 300경기·120골’ 손흥민, 무난한 평점

리버풀전 평점 5~7점대
원톱 뒀던 전반전은 고립
왼쪽 측면 이동 후반 득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00번째 경기에서 120호골을 넣은 손흥민이 현지 매체로부터 무난한 평점을 받았다.

손흥민이 뒀 토트넘 홉스퍼는 6일(한국 시각)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3~2024시즌 EPL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에 2-4로 져 4연패에 빠졌다. 이로써 한 경기를 덜 치른 5위 토트넘(승점 60)은 4위 아스톤빌라(승점 67)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4골을 먼저 실점하며 끌려 나간 토트넘은 후반 27분 히사를리송과 후반 32분 손흥민의 연속골로 만회했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이날 선발로 출전해 EPL 300번째 경기에서 120호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90분 동안

71회 볼터치를 하며 키 패스 2개, 슈팅 2개를 기록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전반에는 고립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후반 16분 히사를리송이 들어오고 왼쪽 측면으로 이동한 뒤 움직임이 살아났다.

영국 매체 풋볼리던은 경기 후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주며 “전반전은 상대 수비수를 전혀 괴롭히지 못했다. 후반전에는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 나아졌고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브닝스탠다드는 평점 5점을 주며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 공을 잡기 위해 애썼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왼쪽 측면에서 뛰는 게 더 편해 보인다. 토트넘에 늦게나마 희망을 줬다”고 했다.

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9점을 부여했다. 토트넘에서 선발로 나온 11명 중 유일하게 7점대였다.

또 다른 통계매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7.3점을 줬다.

박지영, KLPGA 투어 교촌 레이디스오픈 우승

“올 시즌 목표는 4승”
이제영·김민솔 공동 2위

박지영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8억원·우승상금 1억4400만원) 마지막 날 역전 우승을 일궜다. 박지영은 5일 경북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으며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박지영은 공동 2위(11언더파 205타) 이제영과 아마추어 김민솔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등극했다. 이로써 박지영은 KLPGA 투어 통산 9승을 달성했다. 지난달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2차례 우승한 선수는 박지영이 유일하다.

경기 후 박지영은 “우승은 상상도 못 했다.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빠르게 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우승을 발판 삼아 다음 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작년에 했던 3승보다 더 많은 4승을 목표로 달려보겠다”고 전했다.

최근 박지영의 샷감이 뜨겁다. 3주 동안 2차례 우승과 1차례 공동 3위에 올랐다.

박지영은 “확실히 컨디션이 좋고, 어떻게 해야



박지영이 5일 경남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선산에서 열린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물세례를 받고 있다.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법도 안다. 그래서 대회 중에 큰 위기가 없으면 흐름을 탈 수 있었다”고 말했다.

2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나섰던 이제영은 이날 1위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며 생애 첫 우승을 놓쳤다. 2020년 정규투어에 데뷔한 그는 이번 시즌 7개 대회에 나서 3차례 톱5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1라운드 선두였던 황유민은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우승 이후 한 달 만에 정상의 자리를 노렸으나 최종 4위(10언더파 206타)로 마무리했다. 통산 5승에 도전했던 박현경과 시즌 개막전 싱가포르 여자오픈 우승자 김재희는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하며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 박보경은 2언더파 214타를 기록, 공동 29위에 머물렀다.

1안타 1볼넷 김하성, 2경기 연속 안타

샌디에이고 4-11 대패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멀티 홈런으로 타격감을 조율했다.

김하성은 6일(한국 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4 마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경기’에 유격수 겸 8번타자로 선발출전, 3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시즌 5호 홈런을 터뜨렸던 김하성은 2경기 연속 안타를 날렸다. 시즌 타율은 0.214(131타수 28안타)로

소폭 올랐고, 출루율은 0.320으로 높아졌다. 김하성은 2-4로 뒤진 2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볼넷을 골라냈다. 이후 카일 히카시오의 2루타 때 빠른 발을 이용해 득점에 성공했다. 시즌 21득점째.

김하성은 4회 홈런성 타구를 날렸지만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무려 비거리 121m짜리 플레이볼이어서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김하성은 4-11로 끌려가던 6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안타를 때려냈다. 하지만 후속 타선이 터지지 않아 득점에 실패했다.

이후 8회 마지막 타석에서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샌디에이고는 4-11로 완패를 당했다.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제 야 합 니 다 대 구 광 역 일 보 는 독 자 의 생 각 까 지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속 편집인 김 성 웅 부 사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화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역칼럼

혁신이 활성화되는 국가가 되어 한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30년간 고작 5%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2012-2023년 사이에 GDP가 2.8% 늘어난 반면 미국은 65.8%나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과거 7~8%에서 최근에는 2%도 어려워졌다.

2023년에는 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낮았다.

일본과 EU의 경제와 우리나라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 원인은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었다.

'fast follower' 전략으로 다른 나라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도 고임금 국가다. 가격으로는 개도국과 경쟁이 안 된다.

이제는 '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 가격 경쟁은 불가능하므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first mover가 되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첫째, 혁신은 창의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창의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창의성이 제고되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현재의 제품, 서비스가 최선일까?' '현재의 학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최선일까?' 등

등, 학교 교육부터 문제 제기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암기 잘하는 학생, 말 잘 듣는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여긴다. 이스라엘은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라고 묻는다. 가정이나 직장의 상명하복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문화에서는 상상력이 활성화될 수 없다.

둘째, 혁신이 활성화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미진하다.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기득권 생산자 집단의 강력한 저항이다.

의대 정원 확대, 차량 공유, 복합소방시설 건립 등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의식이 변해야 한다.

즉, 전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과신, 시장 불신'의 국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은 규제 개혁을 외치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전월세가 상승하면 임대료 규제를 요구해 임대주택 공급을 오히려 줄인다.

정부는 만능이라고 인식한다. '경제성장추진법'을 만들면 성장이 촉진되는가?

셋째,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 의욕

저하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 경직성이다. 생산 차종 변경을 위한 근로자 재배치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 덕분에 생산성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이 오른다. 호봉제는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혁신이 활성화하려면 혁신에 대한 확고한 보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창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창업 투자는 용자가 아니라 투자여야 한다. 용자는 창업이 실패하면 창업가가 부채 때문에 제기할 수 없다.

위험은 창업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창업투자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혁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강력한 구심체가 필요하다. 혁신은 대부분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각종 선거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미래를 대비한 혁신 정책은 찾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각종 공항 건설 등 재정 퍼주기 여야가 따로 없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면 변화와 혁신은 더 어려워진다.

미래 전략은 각 부처도 추진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혁신이 자기 부처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면 선통 나서지 않는다.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 개방, 금융 규제 완화 등을 주무 부처가 반대한 전례가 있다.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미래전략원은 기획원과 유사하게 미래 정책 개발 기능과 예산 기능을 부여하고 부총리급으로 보임해야 한다. 미래전략원은 전 국민이 미래 준비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국가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오늘의 정치 논평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입니다



국민의힘 정경채 대변인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순직 해병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현재 수사당국은 물론 민주당이 앞장서 신실했던 공수처까지 나서 수사 중입니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인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을 들어 다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 지방경찰청 등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염포를 놓고 있는 것이 나뉠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기만 합니다.

비극적 사건을 정치 소재로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기어코 특검을 강행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반복하며 진실규명만 늦출 뿐입니다.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책임을 명심하십시오.

'여야 협치'와 '민생회복'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무일 것입니다.

특검이 두려운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입니까?



대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

또 거부권 만지작거리는 대통령, 특검이 두려운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박정호 전 수사단장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알려진 등, 수사외압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점차 수사외압의 뒷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계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의 진상을 낱알이 밝히라고 명령하셨고, 그 귀결이 특검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지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습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외압의 뒷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국민계선에서는 특검을 거부한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하는 10가지 건강한 방법



살을 빼고 싶지만 늘 배고픔에 지쳐 있다면,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극단적인 조식에 의존하지 않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많은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부터 현명한 음식 선택까지,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10가지 검증된 전략들을 확인해보자.

1) 단백질 더 많이 먹자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은 포만감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나중에 허기를 느끼며 굶주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적다고 한다. 또한 배고픔 호르몬을 속여 전반적으로 배고픔을 덜 느끼도록 만든다.

2) 섬유질을 더 섭취하라 섬유질은 식사에 부피를 더해서 포만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식사 사이에 굶

침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질은 또한 소화 과정을 늦추어서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3)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추가하라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니다. 건강한 지방은 만능 영양소인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날씬해지려고 할 때 더욱 그렇다. 아보카도,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같은 지방을 먹을 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 우리 몸은 그것들을 소화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4) 물을 많이 마시자 적절한 물을 마시는 것은 성가신 배고픔을 억제하도록 돕고 심지어 더 오랫동안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5) 생산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의 몸이 높은 스트레스 모드에 있을 때, 배고픔 신호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너무 집중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잊는 것과 같다. 스트레스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갈망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은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6)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폭 잘 잤을 때 몸의 호르몬은 그렐린(기아 호르몬)과 렙틴(포만 호르몬)의 수준을 체크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7) 활동적으로 지내자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릴 때, 우리의 몸은 엔도르핀이라고 불리는 행복한 화학물질을 방출하는데, 이것은 성가신 배고픔을 억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8) 설탕이 든 음식과 음료의 섭취를 제한하자 설탕이 든 간식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등하여 에너지가 폭발하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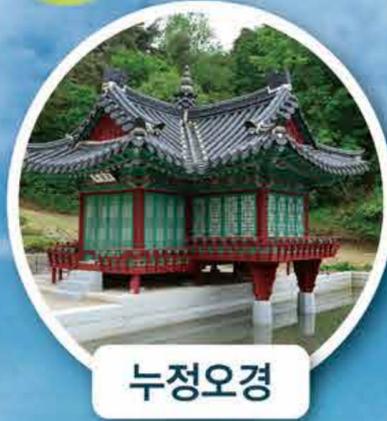
9) 마음을 먹고 먹는 연습을 하자 마음을 먹고 먹을 때 우리 몸은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

10) 규칙적인 식사를 하자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며, 설탕이 든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낙하를 방지한다.

Advertisement for 28th anniversary of Daegu Daechang Ascon, Daeshinhwang, Seiwon Development, Seumsa Jangseong, and Seoyong Developmen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company.



누정전시관



누정오경



솔향촌

봄이 즐거운 이유... 봉화니까!

